

영산강 살리기 접·사용 허가 완료된 나주 하천부지 논밭

294세대 34억 보상 받는다

국토부·익산청, 나주시 재연장 허가 수용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 하천부지 보상과 관련,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경작지를 잃게 된 나주시 290여 가구 주민들이 34억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가서 불허하고 연장허가도 1년 단위로 규제했으며, 올해 4대 강 살리기 선도사업구간과 여타 하천공사 구간 내에는 연장허가를 전면 불허했다.

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었다. 따라서 나주시는 기존 하천부지 경작자들의 생계보호와 연고권에 대한 보상 및 위로 차원에서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농보상을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해왔다.

장, 국토부와 익산청에서 이를 수용해 이번 보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연장허가 받지 못한 294세대 농가에 915필지 158만7천㎡의 하천부지에 대한 재연장 허가를 해줌으로써 보상이 가능하게 됐으며, 모두 34억원의 보상비가 지역민들에게 지급돼 영세농가의 가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천공사가 시작된 다음엔 복암리(다시재)와 진포동, 오량동, 왕곡면 옥곡리(왕곡제)의 경우 이번 보상대상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보상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의적 홍길동 장성역에 등장

폐차차 이용 '홍길동 테마역' 개관



폐차차를 이용한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 전시관이 문을 연다.

장성군은 오는 30일 장성역 광장에서 '홍길동테마역' 개관식을 갖는다. 홍길동 테마역은 열차 이용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길동 콘서트 사업과 장성 관광지 등을 홍보하기 위해 폐차차 2량을 2층 구조로 쌓아 만들었다.

화론편트, 홍길동 애니메이션, 모바일 게임, 홍길동 OST 듣기, 활쏘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전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장성군에서는 상시 인력을 배치해 테마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남 배추 주식회사' 설립 순항

발기인 총회... 출자 자본금 17억 확정

해남 배추 주식회사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남 농업회사법인 해남 배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 실무 지원단, 관련 조항 등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기인 총회를 열어 자본금과 정관을 최종 승인하는 등 설립 등기를 위한 마

무리 작업을 마쳤다. 참여 조직은 3개 농협(황산, 문내, 화원농협)과 4개 영농조합법인(무진유통, 미래유통, 녹색유통, 대명유통)이며, 출자 자본금은 당초 목표액(21억원)을 밑도는 17억 2천만원으로 확정됐다.

표이사로 김옥주 녹색유통법인 대표, 이사에 한춘복 황산농협 조합장과 김충진 문내농협장, 감사에 조덕식 화원농협장과 김영진 미래유통법인 대표가 각각 선임됐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대숲맑은 인재육성' 장학금 1억 돌파

담양장학회 모금 2주만에

담양군이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재)담양장학회의 '대숲맑은 인재육성' 장학금이 모금 2주만에 1억원을 돌파했다. 24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대숲맑은 인재육성 1인1구와 갖기 운동'에 뜻있는 기업체와 공직자들의 참여가 잇따라 1억600여만 원의 장학금이 기탁됐다.

생산하고 있는 두리농원 김상식 대표와 주영찬 군수 권한대행이 첫 기탁자로 나선 데 이어 20여 명의 공직자와 관내 기업체, 출향인, 유관기관, 주민들이 동참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영찬 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장학금 모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명량대첩 승전광장·전망의 섬 조성 탄력

진도 '조도 전망의 섬', '이순신 명량대첩 승전광장 사업'이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계획에 포함돼 탄력을 받게 됐다. 진도군은 24일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계획에 506억원이 투입되는 조도 전망의 섬, 이순신 명량대첩 승전광장 조성 사업 등 2건이 포함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터 201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135억원이 투입돼 다기능 전망대 기능과 관광클러스터 개발계획에 포함돼 탄력을 받게 됐다. 진도군은 24일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계획에 506억원이 투입되는 조도 전망의 섬, 이순신 명량대첩 승전광장 조성 사업 등 2건이 포함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유리공예 작품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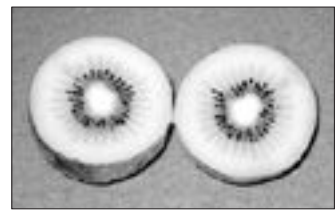
유리공예 작품 전시회가 최근 함평군청 현관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유리공예과정 수강한 지역주민 3명의 생활예술 작품 250여 점을 선보였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전남대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 수강생들이 만든 다양한 유리공예 작품 전시회가 최근 함평군청 현관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유리공예과정 수강한 지역주민 3명의 생활예술 작품 250여 점을 선보였다.

국산 골드키위 '해금' 새 소득원 각광

고품질에 수확량 많아

전남도에서 최근 육성한 황금빛갈 참다래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지난 2007년 10년여 연구 끝에 고품질이면서 수확량이 많은 골드키위 '해금'(사진)을 품종출원 등록하고 지난해 지역적응 시험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확대 보급에 나섰다.



생육이 빠르고, 뉴질랜드 제스프리의 골드키위와 달리 과실표면에 털이 없는 등 모양과 맛이 우수하다는 평가이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앞으로 '해금'품종 묘목을 대량 육성하는 한편 유기재배 기술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1천393농가에서 500ha에서 1만2천의 참다래를 생산, 연간 146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해남 양파 첫 수출 대만 1천400t 계약

해남산 양파가 대만으로 처음 수출된다. 해남군 문내농협은 지난 23일 농산물 수출업체인 ㈜SG트레이딩 등과 다음달까지 해남산 양파 1천400t을 대만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문내농협은 이번 양파수출로 7억여 원의 소득을 올리고 과잉재배로 폭락한 올해 생산된 양파값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양파 수출은 고무마와 감, 김치, 청국장 등 다른 농산물의 수출에 이은 것으로, 해남산 농산물의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Legal notice advertisement for '국민법률경제매(주)' featuring '법원부동산경매정보' and contact information for '공인중개사/경매분석사: 정미경'.